<입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https://namu.wiki/w/%EC%A0%95%EB%B6%80)나 [중앙은행](https://namu.wiki/w/%EC%A4%91%EC%95%99%EC%9D%80%ED%96%89),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이유로는 블록체인기술이 적용되어있기 때문인데,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기록을 검증하여 위조를 막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인해 비트코인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카드와같이 도용위험이 있는 결제수단과는 달리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칭하여 지불할 수 없고, 복잡한 보안인증절차는 필요없는 반면,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번에 있었던 G20 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우리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기술 혁신을 인정한다”, “일정 부분에서 암호화 자산은 금융안전과 관련된 함의를 지니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는 차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될것이며 그로인해 수요량이 늘게되는반면, 비트코인은 채굴의 난이도가 높기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한다. 따라서 공급은 일정하기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것이다.

기술적인면을 배제하고도 2013년 말 채굴량과 개당 가격은 각각 1200만개와 13만원이였으나 2017년 말 기준 전체 채굴량은 1670만 개이며 폭등과 폭락을 겪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승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이는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일정한 공급량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증가로 이어진다.

<반박>

채굴이 완료된다면 수요공급법칙에 의하여 적당한 가격대가 형성될것이며 현재 채굴난이도와 미래의 채굴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보다는 대폭 향상될것이다.

2018년 3월 현재의경우 수요가 상당히 낮아진상태인 반면, 가격은 대폭 줄어들지않았으므로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것이다.

일본해킹의건은 비트코인이 위험한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다. 금융안정위원회 산하 국제기준 설정협의체가 암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것이다.

이에 앞서 마크 카니 금융안정위원회(FBS) 의장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만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 글로벌 국내총생산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생겼다. 이는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뜻.

<참고자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https://namu.wiki/w/%EC%A0%95%EB%B6%80)나 [중앙은행](https://namu.wiki/w/%EC%A4%91%EC%95%99%EC%9D%80%ED%96%89),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https://namu.wiki/w/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급락,급등의 경우가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승함

채굴이 완료된다면 수요공급법칙에 의하여 적당한 가격이 형성

한국금융신문 - 월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년후 9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

-최근 70% 하락세는 긍정적인 징조

글로벌경제신문 - 월가의 주요 전략가가 비트코인이 여전히 최선의 투자분야라고 주장

-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공동 창립자인 토마스 리는 "소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투자자에게 최선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CBCN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악재가 많아서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현재 가격 까지밖에 내려가지않고 버티었다.

말이 많아서 떨어졌는데 규제가 금지가아닌 과세부과이다. 확대해석에 의해서 떨어짐

비트코인은 상품성이없는 화폐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비트코인시장이 작은 시장이아님,범죄조직등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시장이 쉽게 축소될일은없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급락,급등의 경우가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승함 v

채굴이 완료된다면 수요공급법칙에 의하여 적당한 가격이 형성 v

일본해킹의 건은 비트코인이 위험한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다. 정부같은 곳에서 관리를한다면 위험성이 대폭 줄어들것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9~20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가상화폐)을 포함한 기술 혁신을 인정한다”, “일정 부분에서 암호화 자산은 금융안전과 관련된 함의를 지니고 있다”라면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마크 카니 금융안정위원회(FBS) 의장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만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 글로벌 국내총생산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로 가격이 오를수도있음